



*사진은 AI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numbers

vol. 330 | 2026.4.14.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기독교인 비율, 지속 하락세에서
2024년부터 반등!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6 세대 차이 인식
2. 2025 사이버 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6.3 지방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 비율, 지속 하락세에서 2024년부터 반등!

기독교 인구의 가파른 하락세가 멈추고 마침내 반전의 신호가 나타났다. 최근 공개한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최저치(37%)를 기록한 후, 2025년 40%를 회복하며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2004년 정점 이후 줄곧 하락하던 탈종교화의 가파른 기세가 일단 저지된 모양새다. 특히 기독교인 비율 역시 20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18%를 기록, 불교와 가톨릭을 제치고 종교 지형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교회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무종교인 비율은 60%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52%)이 종교에 대해 불신을 넘어 아예 ‘관심이 없다’고 답한 점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존재한다. 과거의 탈종교화가 종교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이탈’이었다면, 이제는 종교 자체를 삶의 선택지에서 지워버린 ‘심리적 단절’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비종교인 3명 중 2명이 호감 가는 종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결과는 종교의 사회적 매력이 역대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기독교 인구 반등이라는 희망과 종교 무관심이라는 냉기가 공존하는 시대, 이번 <넘버즈 330호>를 통해 한국 교회가 ‘불신’보다 무서운 ‘무관심’의 벽을 넘어 종교 밖 사람들의 내적 갈망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선교적 돌파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표본 규모	총 7,647명 / [현황·인식 4,606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면접조사원 일대일 개별 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표본 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표본 오차	95%신뢰수준에서 $\pm 1.1\%p$
조사 기간	2025년 결과 : 2025년 3월 ~11월
조사 수행 기관	한국갤럽

*과거 조사 개요 (조사기간, 표본오차,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의뢰/수행처는 모두 위와 동일)

제1차: 1983년 8월 25일~9월 8일 / 만 18세 이상 1,946명 / $\pm 2.2\%p$ (보고서는 1984년 발행)

제2차: 1989년 3월 4~10일 / 만 18세 이상 1,990명 / $\pm 2.2\%p$ (1989년 발행)

제3차: 1997년 9월 14~26일 / 만 18세 이상 1,613명 / $\pm 2.4\%p$ (1998년 발행)

제4차: 2004년 1월 13~31일 / 만 18세 이상 1,500명 / $\pm 2.5\%p$ (2004년 발행)

제5차: 2014년 4월 17일~5월 2일 / 만 19세 이상 1,500명 / $\pm 2.5\%p$ (2015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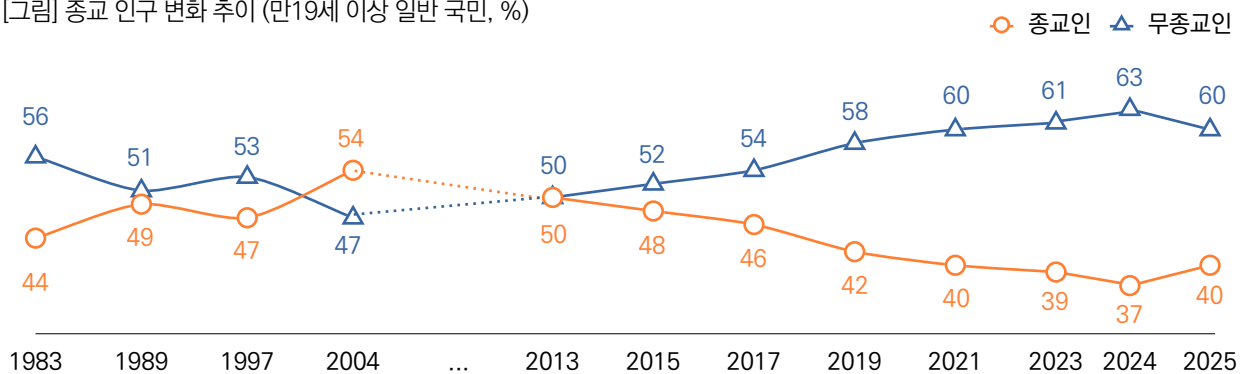
2013~2024년 종교 인구 분포: 만 19세 이상 연간 4,500~10,650명 / $\pm 1.5\sim 0.9\%p$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종교 현황·인식: 2021년 3월 18일~4월 7일 1,500명 / $\pm 2.5\%p$

탈종교화 속 종교 인구, 2025년 40%로 깜짝 반등!

-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지난 40년간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종교 인구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년(37%) 대비 3%p 상승한 수치로, 2004년 정점(54%)을 찍은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꺾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 탈종교화 속 2025년 종교 인구가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이다. 여전히 무종교 인구가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60%대 초반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탈종교화의 가파른 기세가 일단 저지되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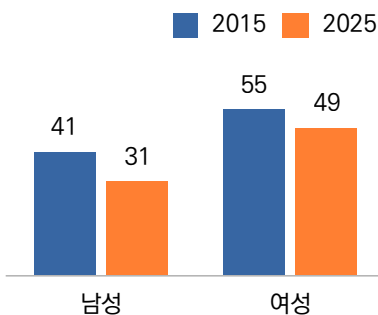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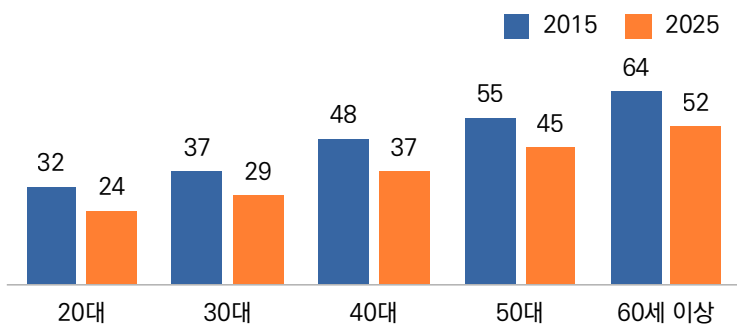
최근 10년 새, 남성 감소폭이 여성 감소폭보다 더 커!

- 최근 10년 간(2015년 대비 2025년) 인구 특성별 종교인 분포 변화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 감소폭이 여성 감소폭보다 더 컸고, 연령별 지표에서도 전연령대에서 8~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 종교인만 52%로 절반을 사수했다.

[그림] 성별 종교인 비율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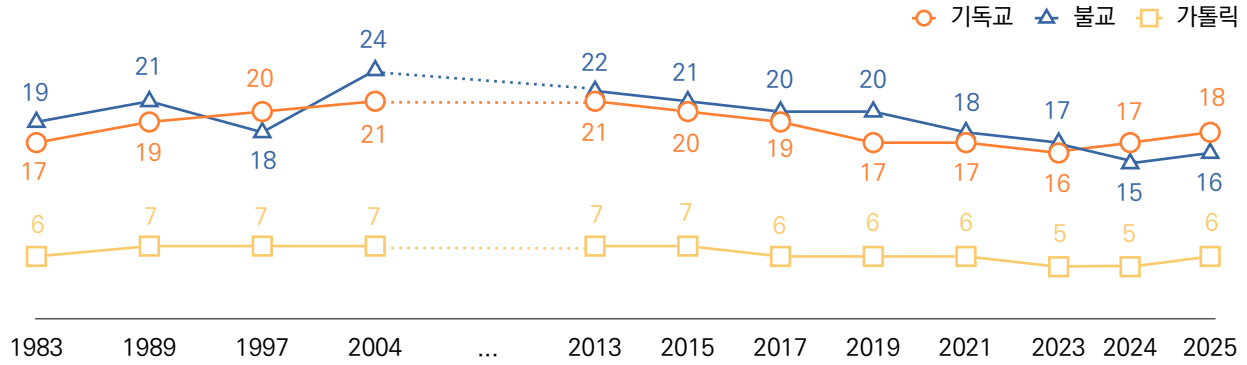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기독교인 비율, 지속 하락세에서 2024년부터 반등!

-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2025년 기준 기독교인 비율은 18%로, 2004년 이래 하락과 정체를 이어가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와 가톨릭도 각각 16%, 6%로, 전년(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기독교의 청년층 점유율, 3대 종교 중 독보적 우위

- 이번에는 종교인별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다. 40대 이하층에서 기독교가 불교, 가톨릭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는 기성세대에서 불교세가 강한 것과 달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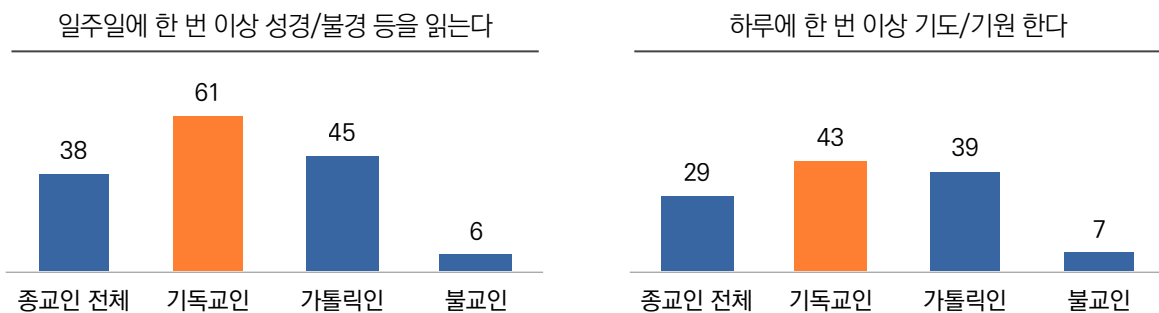
[표] 종교인별 인구 특성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구분	현재 믿는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무종교	계	
전체	18	16	6	60	100.0	
성별	남성	13	13	5	69	100.0
	여성	23	19	7	51	100.0
연령별	19~29세	14	4	6	76	100.0
	30대	16	6	7	71	100.0
	40대	19	11	6	63	100.0
	50대	19	19	7	55	100.0
	60세 이상	18	27	6	48	100.0

기독교인, 타 종교인 대비 높은 '경건 실천' 돋보여!

- 종교인의 신앙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성경(경전) 읽기'와 '기도' 빈도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력이 타 종교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경전)을 읽는다'는 응답에서 기독교인은 61%를 기록해 종교인 전체 평균(38%)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가톨릭인(45%)보다 16%p 높고, 특히 불교인(6%)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종교별로 신앙생활의 방식과 실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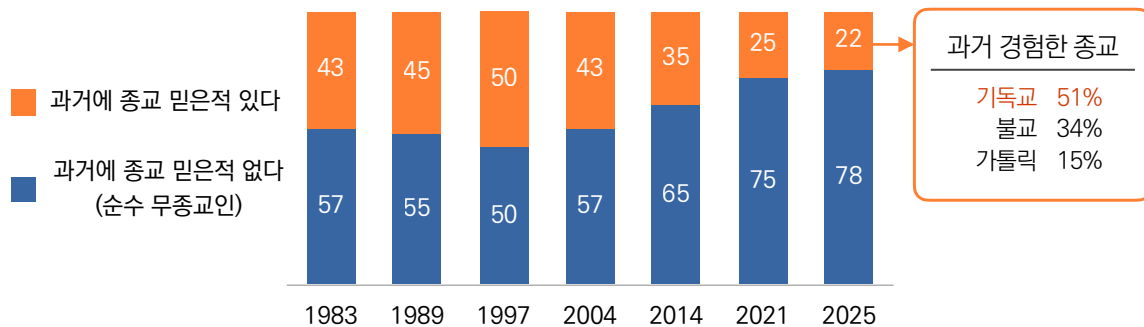
[그림] 종교인의 신앙생활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22%, 역대 최저!

-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인 비율이 6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을 살펴 보았다.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5년 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 종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수 무종교인' 비중(78%)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탈종교화가 단순한 종교 이탈을 넘어 '종교 무경험'이 고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과거 신앙 경험이 있는 무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 출신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불교 34%, 가톨릭 15% 순이었다. 이는 타 종교 대비 기독교에서 무종교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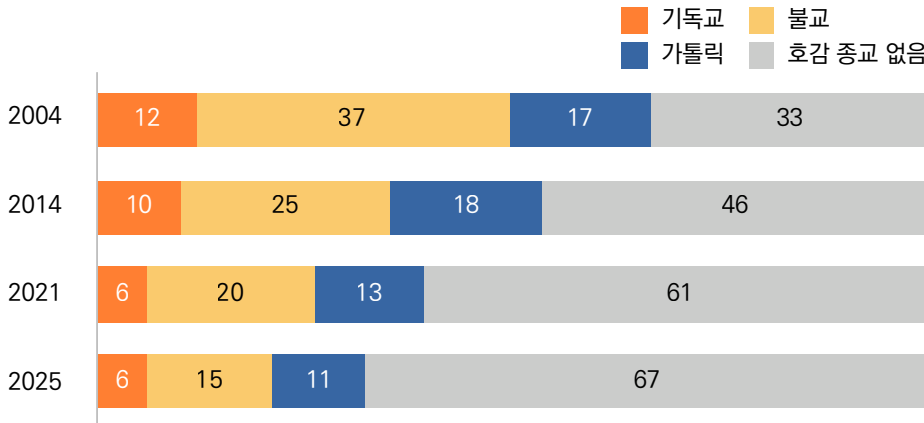
[그림]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무종교인, %)



무종교인 3명 중 2명(67%), '호감 가는 종교 없다!'

- 무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무엇일까?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차수·조사에서 불교, 가톨릭, 기독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33%, 2014년 46%, 2025년에는 67%까지 상승했다.
- 특히 2025년 기준 무종교인 3명 중 2명이 어떤 종교에도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가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회복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가장 호감 가는 종교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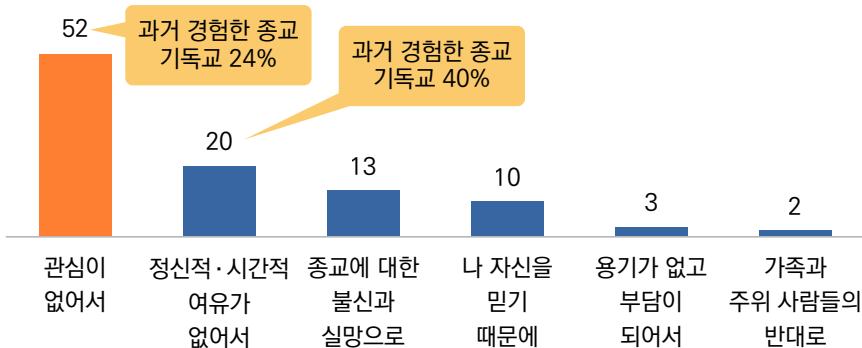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무종교인 종교 믿지 않는 이유, '관심 없어서!'

-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2025년 기준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0%),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13%) 등의 순이었다.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불신'보다 '무관심'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 특히 과거 기독교를 경험한 무종교인의 경우 '무관심'보다는 '정신적·시간적 여유 없음'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는 이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삶의 여건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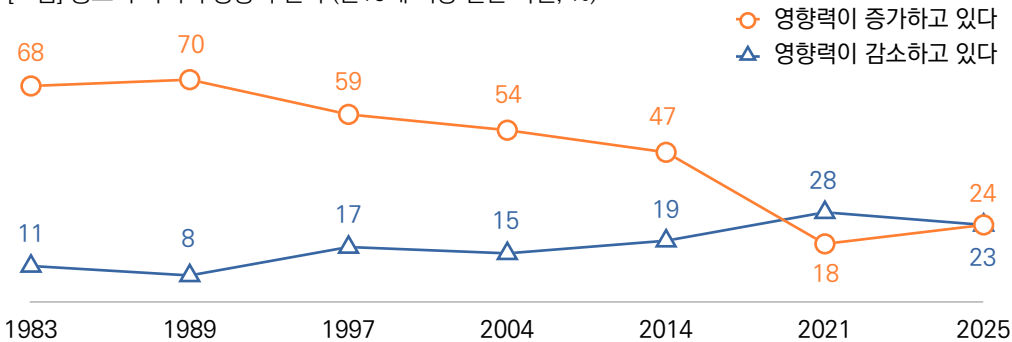


*기타 응답 거절은 제외

종교 영향력 인식, 80년대 '증가 우세'에서 '증가·감소 팽팽' 국면 진입!

- 과거 대비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종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응답 비율은 1980년대 약 70% 수준에서 2004년 54%, 2014년 4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 18%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5년 24%로 6%p 반등했으나, 지난 40년간 흐름을 보면 감소세가 역력하다.
- 한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1983년 11%에서 2014년 19%로 10%대에서 완만한 등락을 보이다가 2025년에는 23%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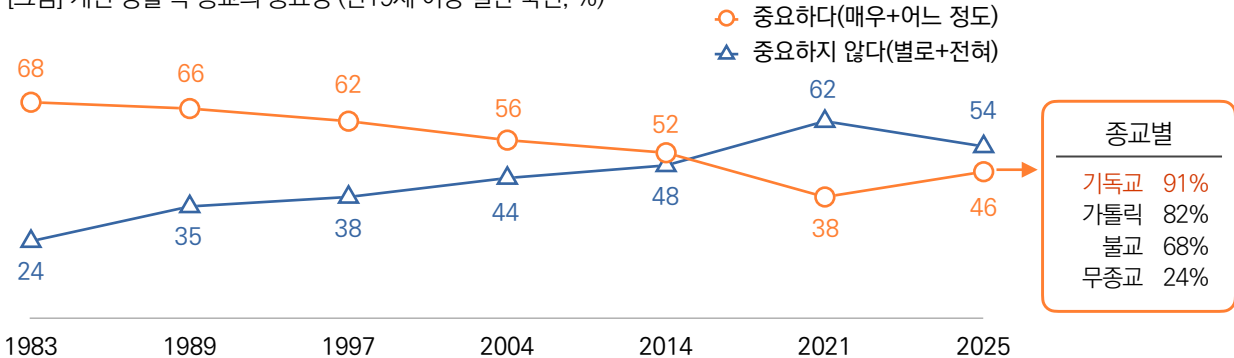


*3점 척도(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비슷하다,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향력 증가와 감소 수치만 제시함.

기독교인 91%, 개인 삶에서 종교 중요!

- 개인 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은 결과, 2025년 기준 중요하다(매우+어느 정도)는 46%, 중요하지 않다(전혀+별로)는 54%로 나타났다. 종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약 7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38%까지 낮아졌으며, 2025년에는 46%로 8%p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은 상황이다.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91%, 가톨릭 82%, 불교 68%가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무종교인은 24%에 그쳐 종교 유무에 따라 중요성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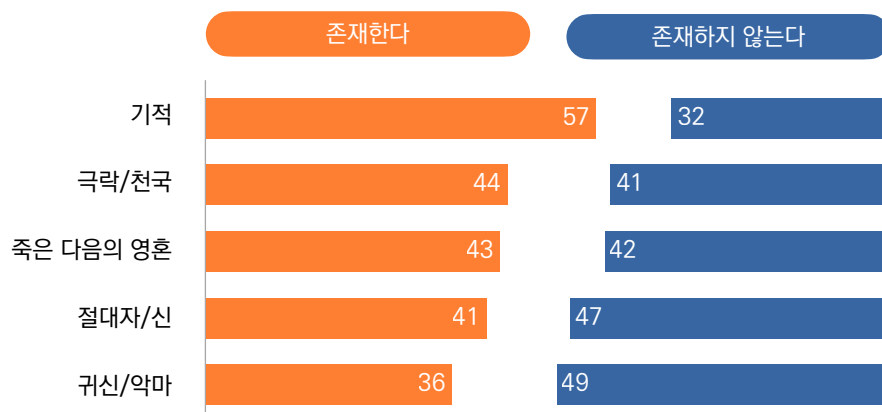
[그림]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우리 국민 절반 이상(57%), '기적' 믿는다!

- 우리 국민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가늠하고자 5가지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물었다.
- 5가지 각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적 57%, 극락/천국 44%, 죽은 다음의 영혼 43%, 절대자/신 41%, 귀신/악마 36%의 국민이 각각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종교인이면 이 5가지 항목에 대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조사 결과는 40% 안팎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기적'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종교인 비율(40%)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무종교인이라도 '기적'을 믿는 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했다.

[그림] 초자연적 개념 존재 여부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Note) 각 항목별 합이 100이 안되는 이유는 '무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번호 요약

1. 탈종교화 속 종교 인구, 2025년 40%로 깜짝 반등!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비율(성인 기준)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년(37%) 대비 3%p 상승한 수치로, 2004년 정점(54%)을 찍은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꺾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2. 기독교인 비율도 2024년부터 반등!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독교인 비율은 2025년 기준 18%로, 2004년 이래 하락과 정체기를 이어가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 기독교의 청년층 점유율, 3대 종교 중 독보적 우위!

종교인별 연령별 구성을 살펴봤을 때, 주목할 점은 40대 이하층에서 기독교가 불교, 가톨릭을 크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환대의 신학 (김진혁 저, IVP)

관련 성경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 탈종교화의 가파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종교 인구와 기독교인의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지표를 보여준 동시에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심리적 거리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째, '반등의 신호'를 발판 삼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4년 이후 이어진 하락과 정체의 흐름을 끊어낸 이번 기독교인 비율의 반등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예상하고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타 종교 대비 청년층(2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한국 교회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제 교회는 다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수적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전도를 넘어, 교회를 찾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연결되며 신앙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가족 정착과 양육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관심의 벽'을 넘기 위해 종교적 권위를 내려놓고 '일상의 접점'을 회복해야 한다. 비종교인의 절반 이상(52%)이 종교에 대해 불신을 넘어 '무관심'하다는 결과는 기존의 공격적인 전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제 교회는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일상의 짐을 덜어주는 '안식처'이자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공동체로서의 매력을 회복해야 한다. '무관심의 벽은 교리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만 허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6 세대 차이 인식
2. 2025 사이버 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6.3 지방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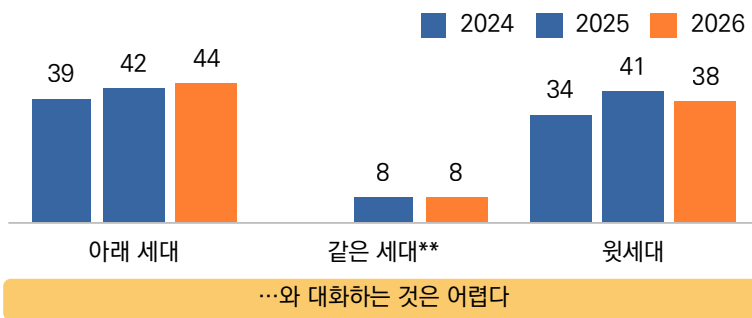




윗세대보다 '아래 세대'와 대화가 더 어렵다!

- 우리 국민의 세대 간 인식을 조사한 결과(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다른 세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보면 '아래 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2024년 39%, 2025년 42%, 2026년 4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반면, '윗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의 경우 2025년 41%까지 높아졌다가 2026년 38%로 3%p 하락하며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와 소통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다른 세대와의 대화 ('매우 어렵다+어려운 편이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세대인식조사] 세대간 관계와 소통, 2026.03.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4점 척도

**2025년 조사부터 같은 세대에 대한 평가 항목 들어감

20대와 60대,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 90% 안팎!

- 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묻은 결과(매우 많이+약간 느끼는 편), 10~20대를 지목한 비율이 각각 81%, 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20대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느끼는 세대 차이 인식은 약 90%로 높았고(60대 88%, 70세 이상 90%), 60대 이상 역시 20대 청년에게 비슷한 수준(60대 91%, 70세 이상 89%)의 높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표] 각 연령대에 대한 세대 차이 인식 (2026, %)

해당되는 세대	10대에게	20대에게	30대에게	40대에게	50대에게	60대에게	70대 이상에게	
전체	81	74	58	44	38	43	57	
응답자 연령대	18~29세	51	13	36	77	84	88	90
	30대	80	67	12	22	65	80	83
	40대	83	82	47	7	22	59	73
	50대	89	90	73	34	6	24	62
	60대	87	91	84	60	25	5	33
	70대 이상	89	89	88	70	39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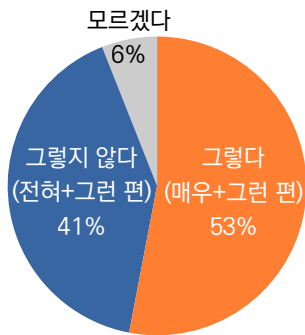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세대인식조사] 세대간 관계와 소통, 2026.03.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Note) 10점 만점(0점: 전혀 친근하지 않음 ~ 10점: 매우 친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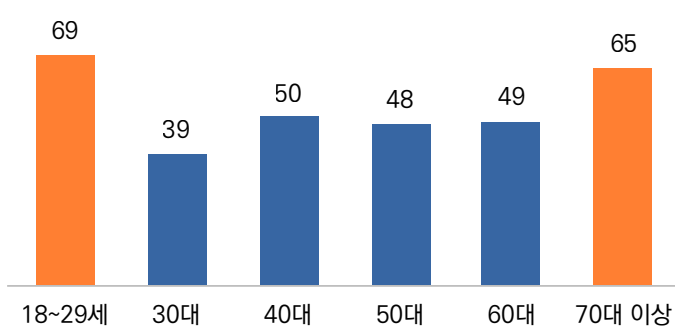
국민 절반 이상(53%), 다른 세대가 나의 세대 부정적으로 본다!

- 본인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매우+그런 편) 53%, '그렇지 않다'(전혀+그런 편) 41%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른 세대가 자신의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9%)와 70대 이상(65%)에서 '다른 세대가 나의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의 양극단이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 체감도는 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본인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그림] 다른 세대가 나의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비율 (연령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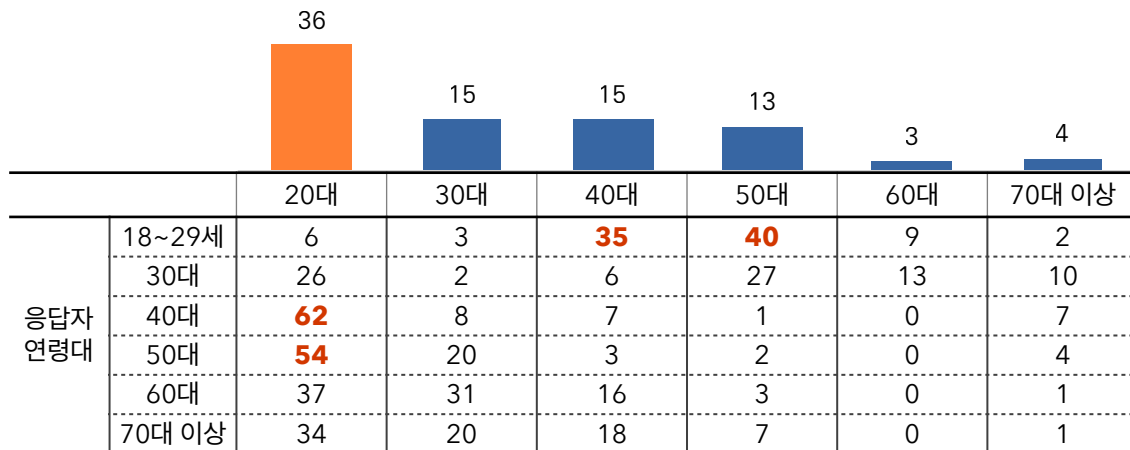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세대인식조사] 세대간 관계와 소통, 2026.03.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4050과 20대, 서로가 '나를 싫어하는 세대'로 지목!

- 이번에는 어떤 세대가 자신의 세대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자신의 세대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 20대(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30대(15%), 40대(15%) 순이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자기 세대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 50대(40%)와 40대(35%)를 각각 1,2위로 지목했다. 반대로 40대(62%, 1위)와 50대(54%, 1위)는 절반 이상이 20대를 꼽았는데,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격인 4050과 20대가 서로를 나를 싫어하는 세대로 낙인찍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호 부정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본인 세대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대 (본인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느끼는 자,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세대인식조사] 세대간 관계와 소통, 2026.03.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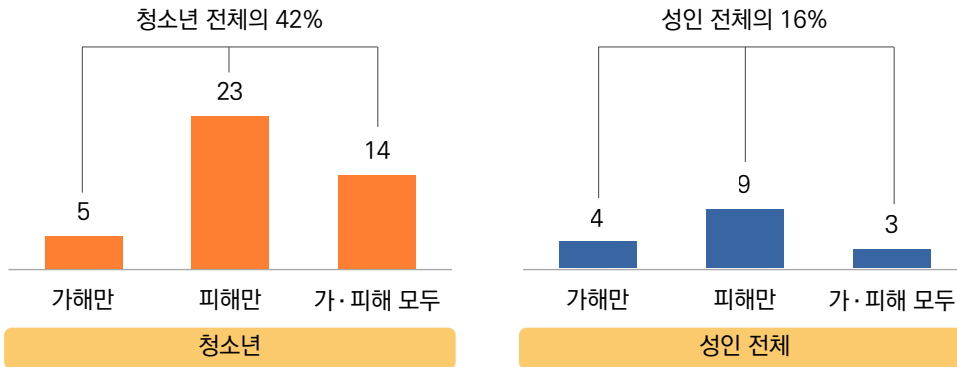


[2025 사이버 폭력 실태]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 폭력 경험!

-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42%, 성인의 1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가해, 피해, 가·피해 모두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그림] 사이버 폭력 경험률 (2025,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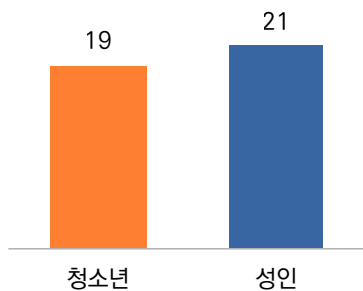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6.03.30. (청소년 조사: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총 9,296명, 면접·온라인 조사, 2025.09.01.~11.20./성인 조사: 만 19세~69세 7,521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25.09.01.~11.05.)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 청소년은 '외모', 성인은 '정치 성향'이 최대!

- 디지털 혐오 표현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19%)과 성인(21%) 각각 5명 중 1명꼴로 디지털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신체·외모(10%) 관련 혐오 표현이, 성인은 정치 성향(15%) 관련이 가장 많았다.

[그림] 디지털 혐오 표현 사용 경험 여부 (2025, '있음' 비율, %)



[표] 디지털 혐오 표현 유형별 경험 (2025, 혐오 표현 경험자, 상위 3개)

	청소년	성인
1위	신체·외모 (10%)	정치 성향 (15%)
2위	국적·인종 (9%)	지역 (9%)
3위	성소수자 (8%)	종교 (9%)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6.03.30. (청소년 조사: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총 9,296명, 면접·온라인 조사, 2025.09.01.~11.20./성인 조사: 만 19세~69세 7,521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25.09.01.~11.05.)

6.3 지방선거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유태화 교수

(백석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정치적 소명: 지방선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응답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과거 30여 년 전에 비하여 지역적 특색이 더욱 뚜렷해진 모습을 보게 된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와 함께 지역의 곳곳이 정비되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삶의 현장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한 번쯤 방문하여 돌아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매력을 담지하고 있다. 지방 자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사회 그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징이 도드라지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치러질 6월 3일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도시 정책을 책임질 인재를 찾아 세우는 중요한 날이다. 특정한 종교나 이익 집단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직시하며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 세워 미래를 노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좁게는 교회적 일이기도 하고 넓게는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다. 사람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 신앙이 개입되는 정치적인 행위가 실행되어야 하는 날인 까닭이다.

세계관적인 토대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온 우주의 주재권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신다. 자연법칙이나 창조 질서를 근간으로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 실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일반에도 매우 깊숙하게 관여하신다(행 17:24-27). 특별히 인간의 삶의 구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는 제일 원인으로서 하나님뿐 아니라 제이 원인으로서 인간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국가를 통치하신다. 위정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상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위정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보인 하나님의 성정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 타락의 질서 가운데서도 인간 일반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성을 잘 파악하고 그 마음으로 맡겨진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자로 기능해야 마땅하다. 지역사회의 거주민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이 위정자인 것이다.

누군가는 직접 그 일을 실행하려고 나서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을 골라 세움으로써 정치적 소명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인간 일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반응해야 할 정치적인 소명에 응답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정부가 판을 짜고 실행하는 인간 편에서 일어나는 선거를 넘어서는, 일종의 신적 사건인 셈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소명에 부응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59호 \(2026년 4월 2주\)](#)

- 고유가 피해지원금,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8호 \(2026년 4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지방선거 성격, 지방선거 후보 투표 시 고려사항 등

사회 일반

[티 안 날 줄 알았던 시리포트, 걸리자 “교수님, 증거 있어요?”](#)

중앙일보_2026.4.4.

[서울서 사라지는 ‘남학교·여학교’…최근 3년간 13곳 ‘남녀공학’으로](#)

중앙일보_2026.4.7.

[빈부 갈등 ↓, 남녀 갈등 ↑…사회갈등 지형 바뀌는 한국](#)

데이터숨_2026.4.2.

[청년 혼인 늘리려면 “주거비·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풀어야”](#)

데이터숨_2026.4.9.

["SNS 인증"... 산마다 MZ 북적이는 이유보니](#)

조선비즈_2026.4.7.

["퇴근하고 2시간씩 만들어요"... '나만의 앱' 만드는 사람들](#)

조선일보_2026.4.13.

노인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100만원...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중앙일보_2026.4.9.

경제 · 기업

[\[시픽\] 직장인 92% "AI 쓴다"...기업 AX는 아직 '초기'](#)

연합뉴스_2026.4.8.

["Z세대 53% AI 확산으로 자기소개서 변별력 잃어" 채용시장 실효성 물음표](#)

동아일보_2026.4.12.

["일 잘할 만하면 귀국... 외국인 숙련공 10년 체류 막는 구조 개선을"](#)

동아일보_2026.4.7.

[대통령 발언에 불붙은 '기간제 2년'...지표는 10년째 제자리](#)

중앙일보_2026.4.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제 · 환경

[한국보다 '최악'... '출산율' 최저 기록한 나라 어디길래](#)

한국경제_2026.4.6.

[“젊은 남성들, 결혼 원하지만 연애조차 못해... 고난의 연속” 美조사](#)

서울신문_2026.4.11.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6.4.10.

건강

[질 좋은 식사에 운동 병행했더니... “우울증 위험 45% ↓”](#)

동아일보_2026.4.9.

[7년내 사망위험 84% 높다... ‘한발 서기 10초’ 무서운 경고](#)

중앙일보_2026.4.12.

기독교 · 종교

[목회자 절반 넘게 설교에 AI 활용... 효율성과 영성 사이 고민](#)

국민일보_2026.4.8.

오피니언

[기름값 오르자 물가 쓰나미... ‘약한 고리’ 저소득 노인부터 덮친다\[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동아일보_2026.4.8.

트렌드

[“나이 안 맞게 젊은 척, 연애 목적”... 2030은 '영포티'를 이렇게 본다](#)

조선일보_2026.4.10.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기독교대안학교 vs 일반학교 학교만족도 비교 조사 연구 결과 발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저희 연구소가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 일정 : 2026년 4월 16일(목) 14:00~17:30
- 2) 장소 :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 다음홀 B1(종로구 혜화로 74)
- 3) 대상 : 기독교대안학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 4) 문의 : 02-6458-3456

[신청 링크](#)



소그룹 리더 양성 퍼실리테이션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4월 30일(목) 11:00~16:00
- 2) 장소 : 비온드처치(구로동로 47길 6, 3층)
- 3)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4) 강사 : 우영준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KCMC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 [목회 코멘트]

CTS기독교TV의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KCMC)가 목회의 막막함을 마주하신 분들을 위한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1) 일 정 : 4월 ~ 7월 총 4회 (매월 네 번째 화요일)
- 2) 장 소 : CTS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 3) 참가비 : 15만원 (과정 우수 수료자 선정하여 장충교회에서 장학금 수여 예정)
- 4) 문 의 : 02-6333-0088 (CTS 미래교회연구소)

[자세히 보기 및 신청 링크](#)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